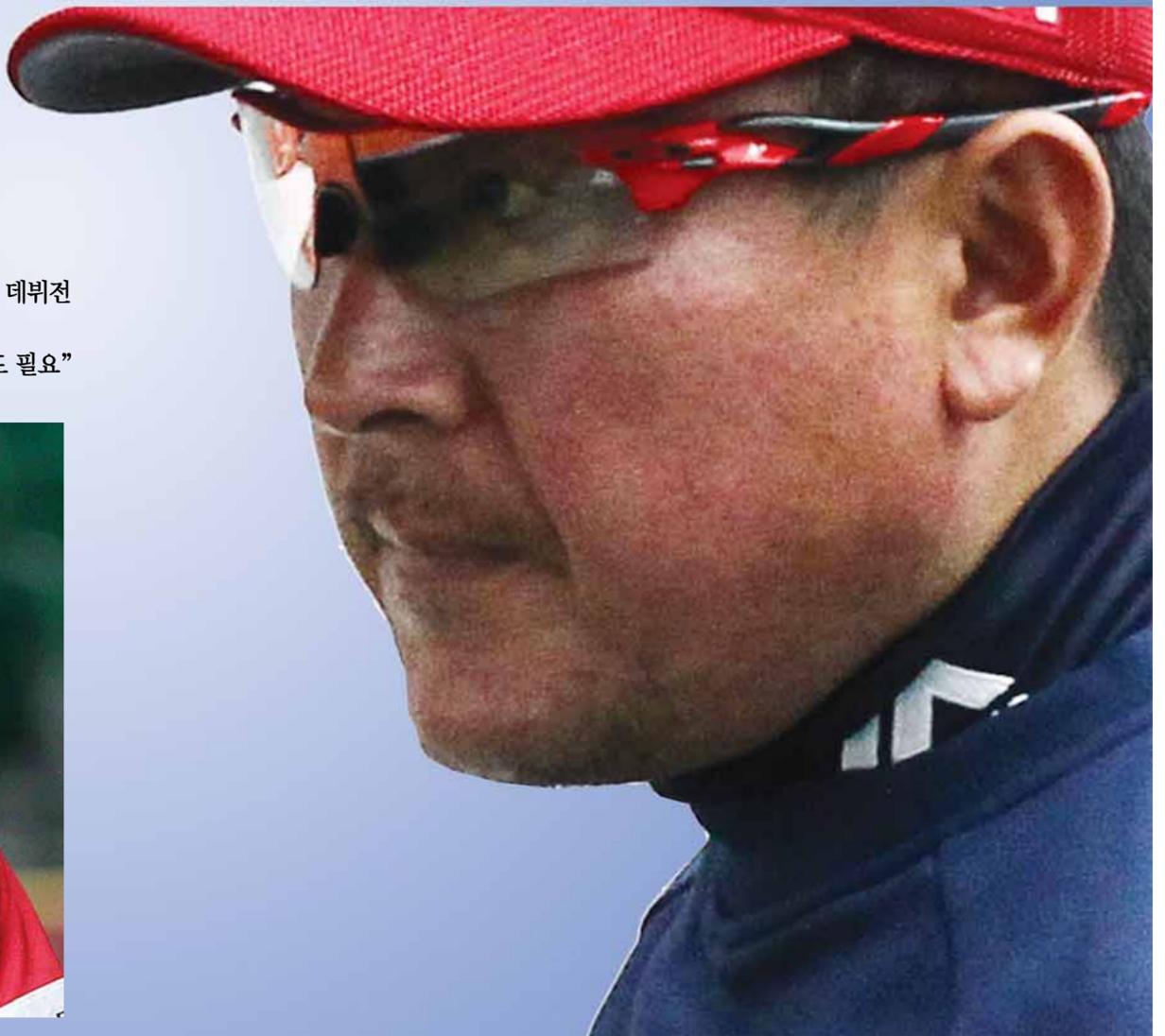


시련의 120구... 김기태의 '육호법'

(호랑이 키우는 방법)



루키 임기준, 6이닝 13피안타 11실점 13-5 대패... 혹독 선발 데뷔전

7회 등판에 '벌투' 논란... 김감독 "안스럽지만 팀 위한 희생도 필요"



스프링 캠프의 스타 KIA 좌완 임기준에게는 혹독했던

선발 데뷔전이였다. 김기태 감독에게는 멀리 보고 가는 고민 많은 경기였다.

임기준은 지난 8일 NC와의 홈경기를 통해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앞서 2일 SK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나서 4이닝을 소화하는 했지만 비로 경기 최후순회 공식 데뷔전은 8일이 됐다.

많은 기대 속에 마운드에 올랐지만 내용은 좋지 못했다. 1회를 볼넷으로 시작한 임기준은 진흥고 선배 나성범에게 투런을 얻어맞았고, 4회에도 테임즈에게 한방을 허용했다. 5회에는 제구 난조 속에 세 명의 타자를 몸에 맞추며 출루시켰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지만 연속 3안타를 허용하면서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처리하지 못

하고 물러났다.

임기준의 선발 데뷔전 공식 기록은 6이닝 13피안타(2피홈런) 10사사구 4탈삼진 11실점이 됐다. 투구수는 120개에 달했다. 경기는 5-13 대패로 끝났다.

접수처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 투구수가 100개가 넘어갔던 만큼 7회 등판에 대해 "벌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김기태 감독에게는 멀리가기 위한 한 수였다.

김 감독은 9일 "프로에서 벌투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선수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짐을 싸게 하면 되는 것이다"며 "주말 상황이었다면 교체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주중에 경기가 많이 남은 만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생각했다. 다행히 흥건희도 3이닝을 소화해주면서 두 명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고 상대 투수는 5명을 끌어냈다"고 언급했다.

등판에 앞서 당초 설정해둔 한계 투구수도 120개였다.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팀을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김 감독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김 감독은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았고 삼성전 상황도 알 수 없는 만큼 엔트리를 지켜야 한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안스럽다. 그러나 팀 조직력을 살려야 하고 희생도 필요하다. 감독으로서 멀리 준비해야 하는 원칙이었다"고 언급했다.

첫 선발 등판에서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보였지만 임기준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 임기준은 다음 주중 LG와의 경기에서도 선발로 등판한다. 어린 투수가 주눅들지 않도록 9일 먼저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냐"고 말을 꺼낸 김 감독은 "(교체 안 해줬다고) 엄마가 뭐라고 안 하시더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혹독한 데뷔전을 치른 임기준은 "어제는 모든 게 좋지 않았다. 다음 등판 잘 준비하겠다"고 작사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2년간 '마제스틱 코리아' 유니폼 입는다

KIA타이거즈가 앞으로 2년간 '마제스틱 코리아' 유니폼을 입는다.

KIA는 지난 8일 NC와의 홈경기에서 챔피언스필드에서 허영택 단장과 방병성 마제스틱 코리아 대표이사 참석 한 가운데 후원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에 따라 마제스틱 코리아는 올 시즌부터 2년간 KIA 선수들이 필드에서 입는 유니폼과 바랍막이, 후디, 폴오버, 스타디움 재킷 등 18억4000만원 상당의 의류와 야구용품을 지원한다.

마제스틱은 2005년부터 미국 메이저리그 모든 팀(30개)의 유니폼을 독점 공급하는 유니폼 전문 브랜드로 올 시즌 국내에 처음 런칭, KIA와 첫 파트너가 됐다.

올 시즌 KIA 유니폼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착용하는 것과 동일한 소재의 원단을 사용해 최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



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선수들이 필드에서 입는 유니폼과 바랍막이 등 어센틱 상품은 구단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과 마제스틱 쇼핑몰

(www.lockerroom.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홈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기장 마제스틱 타이거즈숍에서도 어센틱 상품을 판매한다. /김여울기자 wool@

덕아웃 특·특

조계현 코치, 한기주 방문에 "베이징!"

▲"빨리 와라, 둘 다"=9일 챔피언스필드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습을 보였다. 부상으로 재활을 하고 있는 내야수 김주형과 투수 한기주가 경기장을 찾은 것이다. 두 후배의 등장에 멀리서 최희섭은 반가운 표정으로 "빨리 와라, 둘 다"를 외쳤다.

조계현 수석 코치도 한기주의 등장에 반색을 하며 "베이징!"을 외쳤다. 조 수석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투수코치로 국가대표 한기주와 호흡을 맞췄다. "(한기주의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금메달을 함께 땀으니 괜찮다"며 한기주를 맞은 조 수석코치, 이날 김기태 감독의 호출에 따라 서재

웅, 김병현, 김주형, 한기주는 경기장을 찾아 감독실에서 티타임을 가졌다. 김 감독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얼굴 까먹겠다"며 재활조 대표 선수들을 불러 담소를 나눴다는 후문이다.

▲"저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삼성전 선발 등판을 준비하고 있는 루키 문경찬. 지난 kt와의 경기에서 데뷔전 선발승을 거뒀던 문경찬은 삼성의 노련한 타선을 상대로 두 번째 등판을 소화해야 한다. "삼성전에 대비해 공부 많이 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문경찬은 "(신인이라) 아직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신인답게) 씩씩하게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바로 저입니다"=KIA는 8일 경기까지 단 하나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10개 구단 최소실책 팀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새로 오신 김민호 수비 코치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나?"라는 질문을 받은 유격수 강한울. 마진 유격수 자리에서 김민호 코치가 글러브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던 상황. 강한울은 "저기를 보세요. 바로 저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수창초, 춘계 초등야구대회 우승

광주 수창초가 2015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수창초는 9일 광주분리리틀야구장에서 열린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송정동교를 15-1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팀 수창초는 오는 5월 천안에서 열리는 회장배(제11회 천안흥타령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준우승팀 송정동초도 광주대표로 회장배에 참가한다.

수창초 감독 ▲지도상:전경용 수창초 야구부장 ▲최우수선수상:준모(수창초) ▲우수투수상:김승현(수창초) ▲타격상:신명승(수창초·0.857)▲최다루상:오건우



(4개) ▲최다타점상:신명승(수창초·7타점) ▲감독상:김주찬(송정동초) ▲타격상:신명승(수창초·0.857) ▲최다루상:오건우 수창초 감독 ▲지도상:전경용 수창초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